



○ 한국개혁주의자 설교 시리즈 ③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

(갈라디아서 6:7~10)

오래간만에 만나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입장에만 있지 말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반성을 하면서 같이 내일을 설계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는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듣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경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계나 영계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배나무에서는 배를, 감람나무에서는 감람유를 거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평범한 진리입니다. 착한사람의 생각과 사상에서는 선한 말과 행동과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반면, 악한자의 사상에서는 악한행동과 악한생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성경본문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15:1~2

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는 말씀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심는 자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 이와 같은 것은 등등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방 후에 거제도 진목이라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도중에, 하루는 거리에 나가 보니 어떤 사람이 아이를 업고 있는데 두 눈이 완전히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영수에게 물어 보았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외도를 너무 많이 해서 매도 병에 걸렸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매도병으로 눈이 저렇게 뭉개져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시에라리온 신대원 선교사가 수고하는 곳에 약 1주일 머물고 왔습니다. 세계 유엔에 있는 150여 개국이 모여서 국민소득 500불 미만인 국가 41나라를 뽑아가지고 조사해보니, 그 중에 88%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오늘의 아프리카가 저렇게도 못살게 되었는가? 신대원 선교사의 집은

언덕위에 있었는데, 아침에 저를 따라 나가보자 그래요. 나가보니 그 밑에 개울이 흘러 내려가는데, 그 옆에 우리 움막보다 더 못해요. 기둥 네 개 세워놓고 나뭇잎을 위에 엮어 놓고는 거서 누워 자고 그래요. 밖에서는 돌을 쌓아놓고 냄비를 올려놓고 나뭇가지를 불태워서 음식을 해먹고 그래요. 그 옆에는 개울이 흘러갑니다. 거기에서 세수하고, 그릇 씻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심지어 조금 장소가 다르지만 거기서 용변을 다봐요. 저가 바로 못 보겠어요. 너무 마음이 타서요. 왜 피족같은 피조인간이 왜 이리 못사나? 우리 선교사가 수고하는 시에라리온은 GNP가 250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빈부격차가 많으니까 부유층을 빼고 나면 서민층은 50불미만 밖에 안돼요. 길거리에 가보면 그들의 휴게소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어요. 사진 찍지 못하게 해요. 너무 비참하니까! 왜 그렇게 못사느냐?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노아의 기사가 잠깐 나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한 뒤에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들어가서 보고는 밖으로 나와서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그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도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잠이 깨서 이 일을 알고는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다. 이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되 비웃는 태도로 멸시하는 태도로 조롱과 희롱하는 태도로 그 부모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이런 불경으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됐다. 함이 심은 대로 그 자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됐다. 함의 자손들은 애굽, 아프리카, 지중해 중부 연안, 유브라테 디그라스강 연안을 흩어져 살았습니다. 또 소아시아, 아라비아, 등지에

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일시적인 과오와 실수를 감추어 주지 않고 부모의 허물을 허물밖에 감싸 주지 않고, 폭로시킨 함의 후예인 아프리카 자손들의 오늘의 현실들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한데 그 당시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배교해서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기를 “모두 인간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한즉 내가 다 멸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해준 사람입니다. 그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아비에 대한 함의 불손 불경건한 태도는 그의 과오는 아버지에게 대한 범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일대 도전입니다. 과거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아버지가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은근히 하나님도 잘 못 봤다. 그런 마음이란 말이야. 일종 도전입니다. 몸을 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멸시와 조롱의 태도로 비웃는 태도로 본 것 자체가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범죄는 일종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되어서 중대한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열매를 그들이 다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총리에게 밀가루와 계란세례를 한 사람이 7년 구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학생이, 또 스승입니다. 또 총리입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장을 감금해놓고 머리를 뺏뺏 깎아 놓고 연금을 시켜 놓고 ... 그들이 이다음에 선배가 될 때, 그 후배가 또 어쩔거냐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들이 선배될 때, 후배는 “그래 참자” 누가 보증할 겁니까? 우리 한국 교인은 초창기부터 청교도주의의 신앙이 철저했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한 결과로 한국 장로교회는 전통의 기독교회 전통을 이어 받아 왔습니다. 이 신앙을 이어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국내 모든 미

신, 비기독교, 비이교적인 요소와 전통과 싸워서 순수한 개혁주의 기독교의 한국교회 건설에 순교자와 희생자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인구 4천만의 25%라는 1천만 이상의 기독교신자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배들의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뿌린 복음의 씨의 열매인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려파 교단은 옥중 성도들의 내일의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옥중에서 구상한 꿈이 해방 후에 비로소 고려신학교라는 형태로, 고려파는 교단의 형태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결한 한국교회, 세계교회 건설, 신앙과 생활이 순결한 지상 교회 건설, 신앙의 전통과 생활이 순결한 한국교회 건설과 세계교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우리교단이 출발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동기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야심이 없었습니다. “총회장이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야심이 없었습니다. 옥중에 무슨 야심이 있겠습니까? 참 아름답게 출발을 한 교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출발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탁수가 이 본교에 합류했습니다. 교역자들이 직장의식이 점점 팽창해지고, 여러분들 목회는 결코 직장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직장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닙니다. 신학교는 직업훈련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점은 목사 면허장 따는 면허장 그런 점수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영적 훈련입니다. 신학생이 200명, 300명, 400명 모여드는 것은 좋게 보면 좋지만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신학생의 과잉, 성직 지망의 과잉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밥을 하루 한 끼 밖에 못 먹고 두 끼는 누룽지나 라면으로 때운다고 합시다. 신학생이 많겠습니까? 선교사 요새 많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희망하느냐? 국제 사회 시대에 평생 동안 외국에 사니깐, 생활비가 보장이 되니깐 너도 나도 합니다. 만일 갈 여비 맞추고 석 달 생활비만 주고 가라고 하면 여기 갈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이순복 간사가 “저가 아프리카 나와서 저 꼭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선교부 안에 아프리카 갈 사람 없겠습니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예! 목사님 말로 하면 다 갈라고 하는데 너 가라 하면 갈 사람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지금 그가 갔습니다. 병도 많이 겪었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아프리카로 열흘 전에 떠났습니다. 시에라리온으로 떠났습니다. 신학교 초창기에는 신학생들이, 저 시골에 전도사들이 어울려 학교에 올 때는 큰 호주머니에다 누룽지를 가득 들고 옵니다. 그 부인들이 다 누룽지를 다 끌어 모아 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밥은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는 누룽지로 때웁니다. 이것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 끼 다 때웁니다. 그래도 그때는 불이 탔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다 모두 그래도 그때는 눈물입니다. 물 마시러 갈 때 다 서로 뒤에 갑니다. 첫 번째 가면 다 물만 마시고 뒤에 가면 누룽지가 남아 있어서 다 뒤에 갈려고 하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신학생의 자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학점, 석사 학위, 이게 전부입니까? 영적 훈련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요즈음 교역자들은 남녀 관계가 대단히 문란합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 교회로 옮겨가면 그만입니다. 다 눈감아 줍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사제 윤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언제 선생이고, 신학교 재학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목사가 되면 봐라 너나 내나”합니다. 목사 면허증 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딱 졸업하고 나면 너나 내나 선후배 질서 있습니까? 저가 먼 나라에 가서 유학하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데 늘 기도를 했습니다. 유학생이라고 돌아와서 내게 인사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많은 유학생들이 갔다 옵니다. 선배 찾아 본 일이 없습니다. 인사도 없어요. 언제 다 그렇게 도도해 졌는지 자기는 이다음에 선배 안 될 겁니까? 나는 이번에 학교 문제도 내 나름대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깐 경험담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하나도 말 안 들어요. 결국 갈 때까지 갔습니다. 대안도 말해 주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역자의 물질에 대한 도덕성이 너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우가 말하기를 우리는 월요일 되면 부도수표가 막 밀려드는데 목사들은 저금통장에 자꾸 저금이 불려간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아 이래서 되겠나!” 장로는 부도수표로 죽을 지경인데. 목사는 저금이 자꾸 늘어 간다. 이러니 목사에 존경심이 가겠습니까? 50대 이하는 동기파 몇 년 동기에도 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의 세력은 남이 침범 못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동기끼리 뭉칩니다.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당파 의식, 총회에 모이면 딱 당파로 나누어 집니다. 투표할 때 나눠집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순교의 교단이나? 우리 교단 속에 순교 피가 그렇게 자랑해 싸면서도 윤리도덕의 부재, 경건의 부재, 양심의 둔화, 교권주의 명예주의, 당파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정욕주의, 실용주의, 이기주의 고루고루 다 찾아가면서 갖추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단 속에 깊이 깊이 침투해서 그렇게도 아름답게 출발했던 고려파 교단은 부패 누룩이 극심하게 침투해 오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보다 물질이 앞선다. 목회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과 어찌 났든지 손을 잡습니다. 아부 사업, 당 최고수의 세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뜻을 신뢰하는 데 더 급급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잡한 정치적 공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회장 운동, 부회장 운동, 이사장 운동, 이사 운동, 총대 대표 운동, 추잡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어떤 부장까지 운동을 합니다. 자기 신리를 위해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달라 기도하면서 사실은 인간이 다 꾸며 놓고 하나님이며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이 뒤판 영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복음 병원과의

예과를 중심한 한국 교회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부패 타락한 것은 오늘날까지 지도자들이 교단에 심은 죄악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 교단에 징계의 채찍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 보도에 모 노회에서는 의예과 폐과를 결의했다. 총회에 건의 한다. 얼마만큼 속이 상하면 그러겠습니까? “복음병원 문 닫자!” 저는 생각에 의예과 폐기하면 교단문제가 다 해결되겠느냐? 복음 병원 문 닫아 버리면 다 해결되겠느냐? 의예과를 폐과 할 사람 누구니까? 복음 병원 문 닫을 사람 누구니까? 다른 파 사람? 우리 교단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돌을 던지겠느냐? 나는 깨끗하다 돌 던지자 죽여 버리자.” 그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폐과해야 될 그 의예과를 누가 운영 했습니까? 누가 경영했습니까? 그 경영자가 누구니까? 교수입니다. 학생들은 피 교역자입니다.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의예과 학생이 담배를 피워요. “야, 여기 모여 봐라 여기가 너 개인방이야? 너 개인소유야? 이 교실 담배를 꺼라.” 아무도 교실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학교가 딱 붙들면 학생들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연세대를 두고 우리가 다 세속학교라고 말하지요. 초대 총장 백낙준씨가 교정을 돌다가 어떤 학생이 저구석에서 담배를 피웠거든. 오라고 꿰어앉힙니다. 학생 신분증을 빼앗습니다. “당신 정학입니다.” 정학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학교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다. 다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 학생들한테 돌립니다. 훈련시키지 않고 처음에 의예과 입학을 받고 나서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신학대학 신학과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문을 인도하면 신학과 대학원 학생은 아니겠지만은 밑에서 탁구를 칩니다. 처음에 의예과 학생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야 이 고려과 이 학공데”하며 참 떨었습니다. “경건회 오고 밑에는 탁구도 치고 다 별수 없네, 또 담배도 쫓네. 저거나 우리나라 ...” 이래가지고 저래 뒀습니다.

점점 이게 무책임입니까? 의예과 폐과 전에 복음 병원 문 닫기 전에 폐과까지
 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운영해온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십시오. 사람이 회개
 하자. 우리 지도자가 다 회개 하자. 우리 이제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매를 맞아
 야 되요. 하나님의 징계 중 하나입니다. 6.25 동란 전에 고려 신학을 했습니다.
 그 때 예배 인도 할 때 큰 설교도 한 것도 아닌데, 아무거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계속했습니다. 또 다음에 또 기도를 합니다. 점심시간
 이 지나가고 다음 시간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수업을 못했습니다. 다
 음날 모여서 또 기도를 합니다. 또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과오를 다 털어
 놓았습니다. 남이 알면 안 되는 것까지 다 털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많았
 는지. 6.25 동란의 승리에는 고려신학교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다 신학생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책임지고 회개하
 자 하나님이며 징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받
 겠습니다. 책임을 우리가 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분
 을 못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눈물이 쏟아지면 고려파 문제
 해결됩니다. 의예과 폐과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회개입니다. 과가 문
 제가 아니고, 병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엘상 7:5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
 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 붓듯이 마음을 여호와
 께 붓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
 리의 고려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살길은 의예과 폐과, 복음
 병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여 살리라. 고려파
 의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5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

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찬란했던 고려파 이 전통이 딴 파로 넘어 갑니다. 순교교단 개혁주의 고려파, 이 모든 영광이 딴 데로 넘어 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워하시고 중심이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아뢰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다.” 여러분들 설사 그렇게 나가면 낮짱을 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징계가 마지막에 내리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면, 회개의 눈물이 살아나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재단에 눈물이 없으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력저력 해가지고 졸업장이 따고 목사가 되고 목사 자격증이나 따고 하염없이 하지 마세요. 설령 못해도 좋다. 공부 못해도 좋다. 회개하자. 여러분들, 다 우리가 속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촛대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물 붓듯이 우리 마음을 쏟아 붓고 하나님이며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 1991년 9월 17일 고려신학대학원 경진회에서 행한 설교임. -